

양돈 경영 합리화로
경쟁력을 기르자



최 상 백
(본회 부회장, 7·3 농장 대표)

지난해 우리는 금년 3월 이후의 양돈 불황을 크게 걱정했다. 모돈수와 자돈생산, 도축실적과 사료소비 추세등을 분석할때 확실히 불황이 예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협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우리 양돈인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로 불황을 극복하고 지금과 같은 안정을 유지하게 되었다.

“모돈을 늘리지 말자” “돈사 신·증축을 억제하자”던 정부 시책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로 얻어진 결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황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안정뒤에는 반드시 불황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불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위험 부담을 극소화 시킬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는 돈사의 신·증축이 갑자기 많아지고 육돈으로 길러진 돼지가 번식돈으로 팔려가고 있음을 쉽게 볼수 있다. 양돈 붐이 크게 일고 있음이 실감난다. 가을의 아시안게임과 더불어 3저 호기로 경기회복, 88서울 올림픽으로 이어지는 좋은 여건들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듯 하나 이러한 기대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 양돈가 주변에는 요즘 많은 변화가 있다. 주택이 바뀌고 승용차가 늘어나고 있다. 또 농장에 머무는 시간보다 다방등에 출입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모두가 분수에 맞는 생활의 변화인지는 모르겠으나 양돈 붐을 부채질 하는 결과가 될까 걱정스럽다.

정부는 87년부터 돈육 통조림을 수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 부터 수입 개방 압력을 피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언젠가는 돈육 통조림을 시발로 축산물이 마구 수입되는 시대가 올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정부의 보호정책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영의 합리화로 하루 속히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겠다.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첫째, 종돈 개량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하여야 겠다. 83년도에 개소한 본회 종돈능력검정소가 불과 몇 년만에 오늘과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종돈 개량에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증거로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우량형질의 종돈을 확보하여 사료 효율을 높이고 출하 일령을 단축함은 물론 육질의 개선에도 노력하여 양질의 육류를 공

불황이 왔을때 생산비가 낮은 농가와 높은 농가가 받는 충격은 차이가 많다.

따라서 평소에 꾸준히 생산비 절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

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생산원가 절감에 노력하여야 하겠다. 요즘 양돈시세가 안정되자 생산비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 같은데 불황이 왔을때 생산비가 낮은 농가와 높은 농가가 받는 충격과 감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불황이 왔을때 갑자기 생산비 절감 대책을 강구하기란 무척 어렵다. 평소에 꾸준히 생산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세째, 각종 정보에 신속성을 가져야 한다. 정확한 통계와 관측에 따라 과학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양돈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나 협회의 통계조사등 각종 자료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확한 통계, 정확한 관측이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우리 농가에서 엉터리 자료를 제공하였을때 그 통계에 어떤 관측이 나오겠으며 어떤 정책이 입안되겠는가? 다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이다.

네째, 양돈인들이 단합하여야 한다. 자율적인 생산조절에 모두가 참여하여야 한다. 남들이 모돈을 감축하고 사육두수를 조절할 때 그냥 버티면서 재미를 본 사람도 있다. 이 사람들은 축산 관측을 엉터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산조절을 하였기 때문에 혼자서 덕을 보게 된 것이다. 만약 그와 같이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많아졌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79년도와 같은 불황을 초래하여 모두가 파멸하고 말 것이다.

다섯째, 협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오늘날 소값하락과 우유체화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 속에서도 우리 양돈업만은 안정을

유지하면서 돈육소비가 쇠고기, 닭고기를 포함한 전체 육류의 56% 이상으로 늘어가고 있음은 그동안 우리 양돈인들의 육질개선 노력의 댓가이기도 하지만, 협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소비촉진 홍보활동을 전개한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몇 해전 대기업들의 양돈사업 참여와 축협의 양돈 계열화 사업 계획을 저지시키고 전기업 양돈 농가의 등록 및 허가제를 도입 무절제한 증식을 막게한 축산법 개정의 효과도 있었으리라 믿으며, 이와 같은 일들은 모두 우리 개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나 협회란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양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능동적인 정책개발등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협회가 창립된지 불과 8년만에 전국 58개의 지부조직을 갖고 어느 단체보다도 건실하게 발전하고 있다. 얼마 후면 양돈회관도 순수한 우리 힘으로 건설하게 된다. 우리 양돈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 기회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우리나라 양돈의 현 위치는 우선 사육 규모면에서는 일본(호당 평균 80두)이나 대만(호당 평균 140두)과 비교하면 이제 겨우 10여두로서 도저히 국제경쟁력을 가지기엔 너무 영세하다. 우리나라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개방 압력을 피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까지는 축산물의 수입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양돈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양돈인의 힘이 있어야 하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결속하여 협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